

## 文天祥文集 歷代板本 小考\*

진화\*\* · 권호중\*\*\*

### — 목 차 —

1. 머리말
2. 歷代板本
  - 1) 道體堂本
  - 2) 景泰系本
  - 3) 家刻系本
  - 4) 通行板本
3. 맺음말

### 국문초록

문천상 문집의 최초의 모습은 원대에 문천상의 손자인 문부(文富)가 각관하였다는 50권 문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본이 적은 데다가 다른 책에 저록된 바도 없고, 원대에 이미 소실되어 후대 문천상 문집의 전승과는 인연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문천상 문집과 유관한 최초본의 판본은 『道體堂本』이라 할 수 있다. 鄧碧淸이 “一個源頭, 兩個系統”이라고 하였듯이, 문천상문집은 『道體堂本』을 원류로 하여 경태본과 가각본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최초 판본은 원대에 이미 흩어져 현재는 원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최초 판본이 있으므로 인하여서 후에 더 좋은 판본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 도체당본은 明人 尹鳳岐의 『文山集』 17卷으로 재구성되었다가, 景泰 6년에 陳價의 손에서 『文山先生文集』으

\* 이 연구는 2021년 경상국립대학교발전기금재단 재원으로 수행되었음.

\*\* 경상국립대학교 중문과 강사(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중문과 교수(교신저자)

로 엮어지니, 이것이 바로 경태각본으로서의 최초의 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집은 嘉靖 39년에 張元瑜가 다시 더 교정하고 보충하여 비교적 완벽한 『文山先生全集』으로 만들었으니, 이후의 문천상전집은 대개 이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清代에 오면 문천상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집안에서 판각한 것이 많은데, 연대에 따른 편찬과 교정이 정밀하지가 않아서 현대에 와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현재 통행본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모두 경태 39년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경태 39년본을 저본으로 삼은 전집 가운데서도 1987년 江西人民出版社에서 출판한 『文天祥文集』이 지금까지는 가장 잘 정리한 문집인 것으로 평가된다.

**키워드:** 文天祥, 文天祥全集, 道體堂本, 景泰本, 家刻本, 指南錄, 指南後錄.

## 1. 머리말

문천상(1236~1283년)은 몽고가 송조(宋朝)를 침범하고 송조를 멸망시킨 시대를 살았다. 1275년 덕우(德祐) 원년 감주(贛州)에 있던 문천상은 가산을 처분하여서 3만 명의 의병을 모집하여 항원활동(抗元活動)에 나섰다. 1276년 태황태후의 명을 받아 원의 대장 바이안(伯顔)과의 담판에 나선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면 다시 원에 저항할 것을 염려한 바이안에 의하여 구금되어 대도로 압송당한다. 압송에서 탈출한 문천상은 다시 강서성으로 가서 원에 대한 저항활동을 하지만, 그 세력이 원의 군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1277년 8월 원군의 원수(元帥) 이항(李恒)이 기병을 이끌고 감주(贛州)와 길주(吉州)로 왔다. 문천상은 공갱(空坑)에서 부인 구양씨(歐陽氏), 첩 안씨(顏氏)와 황씨(黃氏), 둘째 아들 불생(佛生), 그리고 딸 유랑(柳娘)과 환랑(環娘)이 모두 원의 군대에 포로가 되었다. 모친 증(曾)부인과 장자 도생(道生)만이 문천상을 따라서 감강(贛江)의 황공탄(惶恐灘)을 거쳐 정주(汀州)로 물러났다. 이 사건이 바로 ‘공갱지변(空坑之變)’이다. 1278년 6월에 조정이 애산(崖山)으로 들어가자 문천상은 광동 조양(潮陽) 일대를 근거로 계속 원군에 저항하였지만, 뜻밖에도 해풍(海豐) 부근의 오과령(五坡嶺)에서 도적무리 진의(陳懿)가 인도한

원군의 습격을 받고 사로잡히게 된다.<sup>1)</sup> 문천상은 약을 먹고 자결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한다. 다시 두 번째 원군의 포로가 되었다. 1279년 상흥(祥興) 2월 6일 장홍범의 공격으로 남송은 멸망한다. 문천상은 배 위에서 송조의 멸망을 지켜보았다. 10월 연(燕)에 도착하자 남송의 재상으로 원에 투항한 유몽염(留夢炎)이 투항을 종용하였고 또 원에 항복하였던 공제(恭帝)가 직접 찾아와서 투항을 권하였으나, 문천상은 황제에게 어가를 돌리시길 청하였다고 한다. 1280년 3월 문천상은 공개전투에서 원군에 잡혀갔던 딸 유량의 편지를 받고서, 모녀 3인이 모두 대도(大都)에서 죄수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5월에 동생 문벽(文璧)이 혜주(惠州)에서 왔다. 문천상은 동생 문벽과 함께 공부했으므로 두 사람 간의 정의는 아주 남달랐다. 두 형제가 만났지만, 속마음을 말하기가 어려웠다. 동생이 떠나면서 형 문천상에게 4백관의 돈을 주었지만, 문천상은 “이것은 역물이라 받을 수 없다(此逆物, 我不受)”는 말로써 냉정하게 거절하였다. 원의 통치자는 강온정책을 병행하며 그에게 핍박하기도 하고 높은 관직을 약속하며 유혹하기도 하였다. 문천상은 죽음을 맹세하고 굴복하지 않았고, 죽음으로 보국하길 결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감옥에 구금된 지 2년이 되는 지원(至元) 19년(1282년) 1월 9일 강개한 마음으로 죽음에 임한다. 문천상은 송조가 멸망하여 나라가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원에 저항하였다. 그는 포로가 되어 감옥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항복한 송조의 황제와 잡혀와 있는 가족의 투항권유를 뿌리쳤고, 안락한 삶과 부귀를 약속하는 원의 회유와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까지 보여준 형장에서의 장렬한 최후는 자신이 「정기가」를 통해 칭송하였던 12인의 역사인물보다도 더욱 위대한 ‘정기’의 위력을 실천하였다. “시운이 곤궁할 때에는 충절이 이내 드러난다(時窮節乃見).”고 한 말처럼 그는 조국이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처했을 때 취해야 할 선비의 자세를 그대로 실천하였다.<sup>2)</sup>

1) 문천상은 이때 막 식사 중이었다고 하며, 진의가 인도한 원군은 장홍범(張弘範, 명의 장수 張柔의 아홉째 아들)의 부장 천호(千戶) 왕유의(王惟義)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문천상의 역사적 업적과 함께 그의 문학적 성취를 기리는 연구도 적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정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그의 문집판본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추후 그의 시문학에 연구로 나아가고자 한다. 생전의 그의 명성을 고려하면 문천상의 첫 문집이 원나라 시기에 이미 출판된 것도 당연하게 여겨진다.

## 2. 歷代板本

문천상의 저작물은 그의 생전에 이미 사람들이 모으거나 서로 전하고 있었다. 그의 초기 시문은 그의 집에 남아 있었다. 문천상은 혜주(惠州)에 있을 때 동생 문벽(文璧)에게 『指南錄』을 주었다. 그리고 또 광주를 떠나서 대도로 북상할 때 손으로 쓴 『指南錄』 두 책을 등광천(鄧光遷)과 증종보(曾宗甫)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는 일찍이 『指南後錄』 第一卷 上半卷을 혜주 교수 사최로(謝崔老)에게 준 바가 있다. 『集杜詩』와 『紀年錄』, 그리고 기타 詩文은 장홍의(張弘毅)가 대도에서 여릉(廬陵)으로 가져왔다. 후에 『紀年錄』은 여릉의 청원(靑原) 사람 등목(鄧木)의 손에 들어갔다. 『胡歌十八拍』은 옥중에 있을 때 왕원량(汪元量)에게 보냈다. 이 밖에도 옥중에 있을 때 친구나 그의 글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 시증이나 서사(書肆)로 보내져서 『吟嘯集』으로 인쇄되기도 하였다. 그의 일부 시문은 또 그의 사후에 옥리에 의하여서 원의 조정에 전해지기도 하였다. 비록 이렇게 전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문천상의 시문은 여전히 산실된 것이 많다.

『文氏通譜·信國公遺翰』에 “문천상의 유고로 원대에 있던 작품집 50권은 공

2) 권호중·황영희, 「文天祥 「正氣歌」에 보이는 歷史人物 考釋」, 『인문사회과학연구』 28권, 2020.12.

의 손자인 文富가 판각하여 세상에 전한 것이나, 전쟁으로 인한 화재를 거치면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다(信公遺稿, 在元時類集五十卷, 公之孫富刻判傳世, 經兵燹不全.)”고 기록하고 있으니, 손자에 의하여서 판각 인쇄된 문천상 유고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sup>3)</sup> 이른바 문부분(文富本) 문천상 문집은 각인한 양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文氏通譜』 이외의 다른 책에는 저록된 바가 없다. 『文氏通譜』가 대대로 전해지니, 그 기록이 근거하는 바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이 문집은 내용이나 간행 책 수, 및 정치적인 금기 등으로 인하여서 전본이 극히 적다가 원대에 이미 실전되었다.<sup>4)</sup> 그래서 학계에서는 현전하는 문천상 문집은 원대(元代) 도체당본(道體堂本)에서 그 원류를 찾고 있다.

## 1) 元代 道體堂本

### (1) 도체당본의 명칭 유래

문천상 문집의 최초 판본은 도체당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명칭의 유래는 「文山觀大水記」의 跋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sup>5)</sup>

문산(文山)의 산문으로 들어가니 만 그루의 소나무 아래로 길이 뻗어서 천도화(天圖畫)에 이르면, 한 줄기 강이 가로지르며 그 앞에 있다. 걷길 수백 보하여, 한 고개를 다하면 송강정이 있다. 정자는 2천 척이나 되는 제방과 접하여 있는데, 그 끝은 障東橋이고, 그 다리 바깥으로 수십 보가 도체당이다.(自文山門而入, 道萬松下, 至天圖畫, 一江橫其前. 行數百步, 盡一嶺為松江亭. 亭接堤二千尺, 盡處為障東橋, 橋外數十步, 為道體堂)

3) 俞兆鵬 俞暉, 『文天祥研究』, 人民出版社, 2008年, p.323.

4) [日]近藤一成撰·尤東進譯, 「文天祥의 “自述”與“他述”- 以文天祥全集의 編纂爲中心」, 暨南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8. 10.15

5) 文天祥著, 『文天祥全集』, 江西人民出版社(1987년), p.331.

도체당은 문천상의 고향 吉安의 文山에 있는 유명한 승지이다. 문천상은 조정에서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와서 매일 도체당이 있는 문산으로 와서 배회하면서 그곳에서 노닐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또 책을 판각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는데, 문천상 고향사람들이 여기에서 그의 문집을 편찬하고 인쇄하였으니 이 책을 『道體堂本』이라고 한 것이다.

## (2) 도체당본의 편찬과정

본문내용 『四庫全書總目提要』 164卷의 『集部·別集類·文山集』에서는 도체당본의 편찬과정과 편찬시기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천상은) 생전에 저술한 『文山隨筆』 십여 권을 늘 지니고 다녔는데, 난을 당하고 나서 모두 잃어버렸다. 元貞·大德 연간에 고향사람들이 찾고 수집하여 『前集』 32권과 『後集』 7권으로 편찬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道體堂本』이다. (生平有『文山隨筆』數十大冊, 常以自隨, 遭難後盡失之. 元貞、大德間其鄉人搜訪, 編爲『前集』三十二卷, 『後集』七卷, 此爲道體堂本)<sup>6)</sup>

문천상이 생전에 지은 『문산수필』 십여 권을 난을 당하여 모두 잃어버렸다가, 원(元)의 원정(元貞 : 1295~1296년), 대덕(大德 : 1297~1305년) 연간에 고향사람들이 전집 32권과 후집 7권으로 편찬한 것이 도체당본이란 것이다. 淸의 吳焯이 찬한 『綉谷亭書彙』에도 “元貞二年 道體堂刊本三十卷, 大德元年, 又刊後集七卷”이라고 저록하여 도체당본이 원대에 이미 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宋代의 文獻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출판한 『宋集珍本叢刊』 제88권에서는 『道體堂本』에 관하여서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7)</sup>

6) 紀昀, 『四庫全書總目提要』, 乾隆四十六年(1781), 164卷 『集部·別集類·文山集』.

7) 四川大學古籍研究所, 『宋集珍本叢刊』(線裝書局, 2004년), 第88冊, p.284-285.

문천상 전집은 송대에는 아직 간행되지 않았다. 원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의 후손 문부(文富)가 50권으로 편찬하고 판각하여서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전해진 판본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에서 저록한 것도 보이지 않았다. 원정 2년에 문천상의 고향 사람들이 『전집』 32권을 판각하였고, 대덕 원년에 또 『후집』 7권을 판각하였다. 세상에서는 그 책을 『道體堂本』이라고 불렀다. 원대 사람 유훈(劉熏)이 『隱居通議』 12권에 이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道體堂本』 최초의 刻本은 명청 교체기에 산실되었지만, 그러나 그 책의 跋語는 이후의 각본에 의하여 전해져 보존되었다. 『道體堂本』은 또 후세의 모든 『文山集』의 祖本이 된다.(文天祥全集在宋代未及刊行, 入元, 始由其孫文富編爲五十卷, 刻板傳世. 但傳本極少, 亦未見他書著錄. 元貞二年, 文天祥故里刻『前集』32卷, 大德元年又刻『後集』7卷, 世稱『道體堂本』. 元人劉熏『隱居通議』卷十二詳載其事. 『道體堂本』原刻雖在明清之際散佚, 但是其跋語卻賴後世刻本得以傳存, 『道體堂本』亦爲後世各『文山集』之祖本.)

『宋集珍本叢刊』 제88권에서는 ‘문천상 전집이 송대 말기에 간행된 이후 원대에 이르러 그의 손자 문부(文富)가 50권으로 편찬하여 세상에 전하였지만, 그러나 전본이 매우 적어서 다른 서적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었다.’고 말하면서, ‘이후 고향사람들이 원정 2년에 전집 32권을 판각하고 다시 대덕 원년에 후집 7권을 판각하면서 그 책을 도체당본이라고 불렀다.’고 문천상 전집이 원대출판 사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 (3) 도체당본의 수록내용

도체당본 문집은 산실(散失)되어 그 원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다행히 도체당에서 간행한 「文山先生文集序」가 남아 있어서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글의 대강을 짐작할 수 있다.<sup>8)</sup>

8) 文天祥, 『文天祥全集』, 江西人民出版社, 1987年, p.803-804.

선생이 평소 저술한 『文山隨筆』이란 책은 십여 권에 달하였다. 수 차례 받은 황제의 서찰과 임명장과 늘 함께 하고, 돌아가신 아버지 혁재선생(革齋先生)이 남긴 유물과 유품까지 함께 행낭에 싣고 다녔다. 정축(丁丑)년에도 여전히 끼고서 지니고 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루 아침에 풀무더기에 버렸으니 정말 탄식스럽다. 지금 백방으로 수습하여 겨우겨우 이 정도가 남았다. (항시에 합격한 寶祐 乙卯(1255년)부터 (쿠빌라이가 남침하는) 咸淳 甲戌(1274년)까지는 종류에 따라 대략 선후를 나눌 수 있어서 이 문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수미가 대충 갖추어졌지만, 산실된 것도 많았다. 시를 예를 들어보면 선생은 지은 작품이 아주 풍부하다. 중년에 작품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남은 작품이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작품을 몇 작품 수록하니 더욱 감개무량하여 탄식하다. 과거시험을 위해 지은 시문 작품에 이르러서는 본래부터 옛날에 황색표지의 판본이 행해짐이 있었고, 또 『年譜』, 『集杜』, 『指南錄』 같은 작품은 甲戌(1274년) 이후의 작품이라 이 편찬에는 없다. 『吟嘯』은 서점에서 자기들끼리 지은 명칭이므로 취할 의미가 없으니 사실은 『指南錄』의 『別集』일 따름이다. 인하여 문집 끝에 그 설명을 드러내어 보는 사람에게 알리고자 할 뿐이다. (先生平日著述, 有『文山隨筆』凡數十大冊, 常與累奉禦筭, 及告身, 及先公太師革齋先生手澤, 共載行橐. 丁丑歲, 猶挾以自隨, 一旦委之草莽, 可爲太息. 今百方搜訪, 僅僅有此. 因自寶祐乙卯後, 至咸淳甲戌止, 隨門類略譜其先後, 以成此編. 雖首尾粗備, 而遺佚者衆矣. 如詩一門, 先生所作甚富, 中年選體更多, 今諸體所存無幾, 而選幾絕響, 更可浩歎. 至如場屋舉子之業, 自有舊日黃冊板行. 又如『年譜』, 『集杜』, 『指南錄』, 則甲戌以後之筆, 不在此編. 其曰『吟嘯』者, 乃書肆自爲之名, 於義無取, 其實則『指南』別集耳. 因著其說於集端, 以諗觀者云)<sup>9)</sup>

당시 문천상은 본인이 저술한 작품을 몸에 지니고 다녔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관원들은 몸에 ‘告身’을 지녔다고 하는데, ‘告身’은 관원들의 관직을 증명하는 신분증이라 할 수 있다. 문천상이 항상 지니고 다녔던 이 저작과 기록들이 후의 문천상문집의 주요 작품으로 수록되었다.

그런데 『道體堂本』에 수록된 내용은 오직 咸淳 10년까지의 작품들만 수

9) 文天祥, 『文天祥全集』, 江西人民出版社, 1987年, p.803-804.

록되어 있고, 그후에 지은 『別集』, 『指南錄』, 『紀年錄』은 『道體堂本』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0)</sup> 문천상 문집의 최초 판본은 오직 향시에 합격한 寶祐 乙卯(1255)년부터 원 세조 쿠빌라이 칸이 승상 바이안(伯顔)에게 송나라를 대거 침입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咸淳 甲戌(1274)년까지의 작품만을 수록하였던 것이다. 또 “(향시에 합격한) 寶祐 乙卯(1255)부터 (후빌라이가 남침하는) 咸淳 甲戌(1274)까지는 종류에 따라 대략 선후를 나눌 수 있어서 이 문집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말에서 문천상 저작은 元代에 이미 간행되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

문천상의 연보자료를 살펴보면 추측할 수 있는데, 1277년에 문천상은 강서 여러 곳의 義軍들과 贛州會昌縣을 되찾아서 아주 작은 승리를 얻었다. 이 기세를 타서 북상하여 興國縣에 들어섰는데, 여기에서 큰 타격을 받고 이어 贛州와 吉州의 성을 되찾는 전투에서 실패하고 동북쪽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원나라 대군과 또 부딪쳐 어쩔 수 없이 멀지 않은 空坑村으로 이동하다가 여기에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부하들의 희생과 지인들의 계략으로 빠져나온 문천상은 본인의 짐을 동생인 文璧에게 맡겼다. 1281년에 大都에 머문 文璧은 형이 부탁한 저작을 가지고 남으로 돌아왔으며, 문천상의 유서도 받았는데, 유서에는 이후 무덤의 위치와 모양, 및 鄧光薦에게 보고 묘지명을 적어달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sup>11)</sup> 따라서 도체당본은 동생 文璧이 고향으로 가져와 고향사람들과 정리하고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元대의 『道體堂本』은 최초의 판본으로 문천상 문집 판본을 연구하는 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明代 초기에 이르러 산산이 흩어져버려 그 완전한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전하는 문천상 문집과 관련한 최초본의 판본은 『道體堂本』이라 할 수 있다. 鄧碧清이 “一個源頭 兩個系統”이라고 하였듯이, 문천상의 문집은 『道體堂本』을 원류로 하여 景泰本

10) 일본학자 近藤一成 역시 『文天祥의 “自述”與“他述”-以文天祥全集의 編纂爲中心』 논문에서 ‘도체당본에는 『指南錄』, 『指南後錄』, 『吟嘯集』, 『紀年錄』, 『集杜詩』가 실리지 않았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11) 『全宋文』 卷八千二百六十 『鄧光薦』, 安徽教育出版社, 2006年, p.324

과 家刻本の 두 계통으로 나누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12)</sup>

## 2) 景泰系本

문천상 문집의 현재 통행본은 사실상 거의 明代의 각판을 전승하여 출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北圖善本書目』과 『西諦書目』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보존되어 있는 가장 이른 문천상전집은 명대시기에 판각한 것이다.<sup>13)</sup> 현재 통행본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明·淸 시기의 판본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明代의 대표적인 문천상 판본은 明 景泰 6년(1455)에 江西節度副使인 陳價가 편찬한 『文山先生文集』을 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를 경태각본(景泰刻本)으로 칭하며, 이를 문천상문집의 대표적인 판본으로 간주한다. 여기서는 경태각본의 모태가 되는 尹鳳岐의 『文山集』을 먼저 살펴보고 난 뒤에 이어서 경태각본의 편찬과정과 그 이후의 유사판본 등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道體堂本』이 흩어진 상황에서 明代의 大臣이자 詩人인 尹鳳岐가 內閣에서 『道體堂本』을 받았는데, 이때 받은 책은 이미 완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尹鳳岐는 다시 편집을 진행하고 명칭을 『文山集』으로 정하였다. 다시 편집한 이 『文山集』은 총 17권으로 구성되었고, 주로 宋 理宗 保佑 3년

12) [日]近藤一成撰·尤東進譯, 『文天祥의 “自述”與“他述”-以文天祥全集의 編纂爲中心』. 鄒宇波는 「文天祥著述板本의 一源三流辨」(『山西大學報·社會科學版』, 2014.9.25.)에서 “一個源頭, 兩個系統”을 비판하며, “一源三流”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도체당본이 명초에는 이미 산실되어 없었는데도 이를 명칭 제각본의 원류로 볼 수 있다면, 오히려 문부분을 원류로 보아도 된다는 것이다. 鄒宇波는 문천상저술과 판본의 원류로 “一源”은 찬동하지만, 그 “一源”은 도체당본이 아니라, 景泰 韓雍刻本(경태 6년 韓雍과 陳價가 『文山先生文集』을 17권, 『別集』 6권, 『附錄』 3권을 간행한 바가 있다.)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세 지류로는 ① 雍正 3년 五桂堂을 대표로 하는 家刻本 16卷, ② 正德 張祥本 및 그것이 연변한 四庫全書本 『文山集』 21卷, ③ 嘉靖 張元諭本 및 그것이 연변하여 이뤄진 四部叢刊本 『文山先生全集』 20卷을 각각 들고 있다.

13) 俞兆鵬·俞暉, 『文天祥研究』, 人民出版社, 2008年, p.324

(1255)부터 宋 度宗 咸淳 10년(1274)까지 문천상이 贛州에서 병을 일으키고 勤王하기 전에 지은 詩文으로 구성되었다. 권수는 최초의 판본 『道體堂本』보다 훨씬 적었다. 그래서 비록 흩어진 상황에서 정리하고 다시 편찬하여 큰 공헌을 하였지만, 현재 통행본은 이 판본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이후의 景泰刻本이 탄생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되긴 하였다.

### (1) 陳價 『文山先生文集』

明 景泰 6년(1455)에 江西節度副使인 陳價가 『文山集』 17권과 『別集』 6권 그리고 『附錄』 3권을 합쳐서 『文山先生文集』으로 각판하였고, 明代 江西 巡撫이자 詩人인 韓雍, 그리고 進士 錢習禮, 大理寺卿 李奎 등 유명 학자들이 序를 적어주었다. 뿐만 아니라 『道體堂本』에 관한 두 개 序도 수록하였다. 韓雍 등이 적은 序에서 이 판본은 尹鳳岐가 館閣 자리에 있을 때 직접 베낀 자료가 들고 돌아 陳價 손에 들어와 다시 교정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나서, 마지막에 韓雍한테 指正 받은 다음에 인쇄하고 후세에 전해 내려왔다고 하였다.<sup>14)</sup> 『道體堂本』의 序 뒤에 적은 跋語를 살펴보면 그 과정을 알 수가 있다.

『文山先生文集』은 『道體堂本』의 前集과 後集을 합쳐서 『文山集』 17권으로 모으고, 흩어진 유고들을 찾아서 『別集』 6권으로 만들었다. 또 명사들이 쓴 전기나 만가(挽歌)를 모아 『附錄』 3권으로 만들었다. 이 책은 『道體堂本』에 근거하여 다시 편찬하고 여기에 더 추가한 것이 있다. 『道體堂本』은 明代 초기에 각판하였는데, 전해지지 못하고 明·清 교체기에 흩어져버려서, 景泰刻本(景泰刻本)이야말로 현존하는 『文山集』의 가장 이른 판본이고, 후세 모든 각본의 근본이다. (文山先生文集系合道體堂本前、後集爲『文山集』十七卷, 訪求遺稿, 編次成帙, 爲『別集』六卷, 又輯名公所述傳記哀挽, 爲附錄三卷, 此本系據道體堂本重編, 並

14) “此刻所據爲尹鳳岐居館閣日鈔本, 經轉運使陳價校勘、編次, 又呈正於江西巡撫韓雍, 遂得鉅梓傳世”

有所增補。道題堂刻於明初失傳，其本亦於明清之際散佚，景泰刻本遂爲現存『文山集』最早之版本，亦是後世諸刻之祖本<sup>15)</sup>

도제당본은 明人 尹鳳岐의 『文山集』 17卷으로 재구성되었다가, 景泰 6년에 陳價의 손에서 『文山先生文集』으로 엮여지니, 이것이 바로 景泰각본으로서의 최초의 문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通行本들은 모두 이 景泰刻本 『文山先生文集』을 기반으로 여기에 추가하거나 재편찬한 것이다. 이 문집은 嘉靖 39년에 張元諭가 다시 더 보충하여 비교적 완벽한 『文山先生全集』으로 만들어 지고 이후의 문헌상전집은 대개 이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劉德清이 景泰刻本에 관한 해제에서, “景泰계판본은 景泰本, 正德시기의 張祥本, 가정시기의 언무경본과 장원유본, 만력시기 호응고본, 승정시기 중월본, 장기봉본 등이 있다.(景泰本系統有景泰本、正德張祥本、嘉靖鄒懋卿本、張元諭本、萬曆胡應臯本、崇禎鍾越本、崇禎間張起鵬刻本等)<sup>16)</sup>고 말한 대로 景泰系本에는 여러 가지 각본이 있다. 아래에 陳價의 景泰板本 이후의 후속 판본을 소개한다.

## (2) 후속 판본

- ① 明代 嘉靖 9년(1530) 각본인 『文山集』 20권이 있다.
- ② 明代 嘉靖 31년(1552)에 鄒懋卿과 寧寵이 각인한 『文山先生全集』 28권이 있다. 이 책의 시작에 翰林學士 敖銳가 序를 적었고, 책의 마지막 부분에 鄒懋卿이 跋文을 적었다. 이 책의 序에서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이 문집을 되돌려 복구하면서 차례를 편성하여서, 총괄적으로 『文山先生文集』으로 이름하였다. 그 안에 『文集』, 『別集』, 『附錄』이

15) [日]近藤一成撰·尤東進譯, 『文天祥의 “自述”與“他述”-以文天祥全集의 編纂爲中心』, 暨南學報, 2018, 10

16) 四川大學古籍研究所, 『宋集珍本叢刊』, 綵裝書局, 2004년, 第88冊, 序

있으며 선생이 지은 것으로 문집에 실지 않은 것은 『拾遺』로 삼았다. 후세에 선생을 위하여 부록을 이은 이가 『續錄』을 지었으니 약간의 권수를 이루게 되어, 마침내 河間守인 董君策에게 주어 諭嚴順으로 하여금 교정하게 하고 知縣 寧寵으로 하여금 판각하게 하였다.” 鄒懋卿의 이 판본은 陳價가 편찬한 景泰板本보다는 더 갖춰졌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한 판본은 아니라 할 수 있다.<sup>17)</sup>

- ③ 明代 嘉靖 39년(1560)에 廬陵郡守 張元瑜가 刻本하고 羅洪先이 앞에 序를 적어준 『文山先生全集』 20권이 있다. 이 판본은 鄒懋卿의 『文山先生全集』을 이어왔기 때문에 현재 通行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판본이다.
- ④ 明代 萬曆 3년(1575)에 胡應麟가 각인한 『文山先生全集』 20권이다. 이 판본에는 潘侃이 序를 적어주었다.
- ⑤ 明代 崇禎 3년(1630)에 毓秀齋에서 張賓宇가 각인한 『新刻宋文丞相信國公文山先生全集』 20권이 있다.
- ⑥ 明代 崇禎 3년(1630)에 鍾越이 각인한 『新刻宋文丞相信國公文山先生全集』 20권이 있다.

明代시기에는 판본이 총 여덟 가지 종류가 나타났다. 그중에서 尹鳳岐가 初本인 『道體堂本』을 재편집하여 『文山集』을 출판하였고, 그후에 明代의 최초 『文山先生全集』인 陳價의 景泰板本이 세상에 등장하였다. 이것은 아주 의미가 있으며 그 이후 더 완벽한 『文山先生全集』이 나올 수 있는 토대로 되었다. 그 후에 鄒懋卿의 『文山先生全集』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여기에서 『拾遺』를 추가 수록하여 陳價의 景泰板本보다 더 보완되었다. 현재 通行本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판본은 언무경(鄒懋卿)의 『文山先生全集』을 이어 嘉靖 39년(1560) 張元瑜가 각인한 『文山先生全集』 20권이라 할 수 있다.

17) 俞兆鵬·俞暉, 『文天祥研究』, 人民出版社, 2008年, p.325

### 3) 家刻系本

가각본은 문천상의 후손 문씨 집안에서 판각한 것과 문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무명씨가 판각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가각본 계통은 문씨 가족의 번각(飜刻)에서 시작하였는데, 『文氏通譜·信國公遺翰』의 기록에 따르면 그 발단은 명 정덕(正德) 연간(1506~1520년) 문천상 7세손 문승음(文承蔭)의 각본(刻本)이다. 가정 연간 무명씨각본, 만력 28년 소대형각본(蕭大亨刻本), 승정 연간 무명씨 각본 등이 있다. 가각본은 경태본 편차나 순서 및 원작에 대하여 비교적 큰 변화를 주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개별 작품에 대하여서도 인위적 가공을 하기도 하였다.<sup>18)</sup>

청대에 가각본이 많긴 하지만 모두가 명각의 번각(飜刻)이다. 아래에 청대 文家刻本과 非文家刻本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그 대략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文氏 家刻本

- ① 清代 雍正 3년(1725)에 문천상의 14대 손자 文有煥이 각본한 『廬陵宋丞相信國公, 文忠烈先生全集』 16권이다. 사실은 文有煥이 편집하고, 16세대 후손 文鳳翔과 文鳳翀이 판각하여, 세상에서는 文氏五桂堂刻本이라고 불렀는데 가각본 가운데 영향력이 가장 컸다. 몇 차례 번각하였지만, 여전히 명 가각본의 오류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 ② 清代 道光 14년(1834)에 후손 文光裕가 각본한 『宋少保信國公文文山先生全集』 16권.
- ③ 清代 道光 17년(1837)에 후손 文成章이 각본한 『文信國公全集』, 裕泰

18) 후술하는 劉德清의 「宋集珍本叢刊解讀」과 近藤一成의 「文天祥의 “自述”與“他述”-以文天祥全集的編纂爲中心」 참고요.

가 序를 썼다.

- ④ 清代 道光 25년(1845)에 강서성 萍鄉에 사는 후대 文晟延의 慶堂刻본인 『宋少保信國公文文山先生全集』 16권이 나왔는데, 이것을 文攀丹이 다시 편집하고 黃定宣과 張汝霖이 校勘하여 책 아래에 "萍鄉族裔晟, 男星見, 星輝重校刊"이라 題하였다.
- ⑤ 清代 道光 25년(1845)에 문천상의 19대 후손인 강서성의 최고 官員 布政使 文柱가 蘇州에서 『重刊文信國公全集』 17권을 각인하고, 첫 권의 마지막 부분에 "遷九江派十九世裔孫柱 重校刊"라 題하였다. 이 판본은 후대 文晟延의 慶堂刻本の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오직 부록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 ⑥ 清代 同治 7년(1868)에 景萊書室에서 『文信國公集』 20권을 각인하였고, "吉水曾宏旅盒原刻、楚醴景萊書室校勘" 라 題하였다. 이 판본은 明代 萬曆시기 胡應臯 刻本の 『文山先生全集』 과 편찬 순서가 비슷하다. 다른 부분이라면 『指南後錄』 에 들어가야 할 일부 시를 『吟嘯集』 에 넣었다는 점이다.
- ⑦ 清代 宣統 2년(1910)에 東雅社에서 『文山別集』 14권을 인쇄하였다. 이 책의 이름은 『別集』 이지만, 사실 문천상의 모든 저작이 수록되어 있어 전집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청대에 마지막에 나온 판본이다.

## (2) 非文氏 家刻本

- ① 清代 康熙 12년(1673)에 吉水에 사는 曾宏이 각본한 『文信國公集』 20권, 吉水知縣인 王雅가 序를 적었다.
- ② 清代 乾隆 52년(1787)에 無名氏가 각본한 『廬陵文丞相文山先生全集』 16권.
- ③ 清代 道光 23년(1843)에 邱日韶의 慕濂草堂에서 각인한 『廬陵宋丞相信國公文忠烈先生全集』 16권. 이 책의 맨 앞에 한 권은 문천상의 19대

후손 文攀丹이 재편집하고, 鹽課提舉인 邱日韶이 刻印하였다.

- ④ 清代 光緒 13년(1887)에 谷詒堂에서 다시 邱日韶가 각인한 『廬陵宋丞相信國公文忠烈先生全集』 16권을 影印하였다. 이 影印本은 원래 刻本과 완전히 똑같고, 오직 표지만 바꿨을 뿐이다.
- ⑤ 清代 道光 28년(1848)에 日新堂에서 다시 邱日韶가 각인한 『廬陵宋丞相信國公文忠烈先生全集』 16권을 影印하였다. 이 影印本도 원래 刻本과 완전히 똑같고, 오직 표지만 바꿨을 뿐이다.

지금까지 元·明·淸시대의 문천상 판본을 살펴보았다. 劉德淸은 『宋集珍本叢刊解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가각본은 문씨 가족들이 그대로 판각한 것이라 그 시작은 文承蔭의 각본에서 시작된 것이다. 현재 가정시기의 무명씨각본, 만력 28년 소대형의 각본, 및 만력·승정시기의 무명씨 각본들이 있다. 가각본은 보편적으로 차례를 엮음에 자세히 살림이 부족하고 교감이 정밀하지 않는 단점이 있어 가치적으로 볼 때는 경태 판본보다 낮다. 청대에 각본은 많이 나타나긴 했지만, 거의 명대의 판본을 그대로 각한 것이며, 가각본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중에서 옹정 3년의 文氏五桂堂刻本이 가장 영향력이 있어서 여러 번 판각하였는데, 이 또한 명대의 가각본의 잘못을 그대로 잇고 있다. 여러 『문산집』의 각본을 깊게 살펴본 결과, 그 시작이 충성과 기개를 알리기 위하다 보니, 왕왕이 문집의 편각과 부록자료의 누적에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잃어버린 글의 수집과 판본교정에는 소홀하였다. 『문산집』은 현재까지 완벽한 판본은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家刻本系統由文氏家族翻刻, 蓋發端于文承蔭刻本, 現存有嘉靖間无名氏刻本、萬曆二十八年蕭大亨刻本、萬曆崇禎間无名氏刻本, 家刻本系統普遍存在編次欠審、校勘不精的缺点, 其价值低于景泰系刻本。清代刻本雖多, 但都是明刻的翻版, 而以家刻本爲主, 其中雍正三年文氏五桂堂刻本影響最大, 一再翻刻, 但該本仍然沿襲着明家刻本之誤。究觀『文山集』諸刻, 其初衷本爲表彰忠義气節, 往往致力于文集之編刻与附錄資料之累積, 而忽視遺文搜集及版本比勘。可以說, 『文山集』迄今尙无一完善之本)<sup>19)</sup>

19) 四川大學古籍研究所, 『宋集珍本叢刊』, 綵裝書局, 2004년, 第88册,

청대에는 가각본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명대의 가각본을 그대로 판각한 것이다. 그리고 가각본은 대부분 문천상 후세들이 판각한 것으로 교감이 정밀하지 않고 오타가 있고 완전하지가 않아서 학술적 연구로 참고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명대의 경태 판본이 상대적으로 정밀하여 현대 통행본들은 거의 모두 明代 嘉靖(1560) 시기에 廬陵郡守 張元瑜가 刻本하고 羅洪先이 앞에 序를 쓴 『文山先生全集』 20권을 影印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외에도 문천상의 전집을 刻印하는 것과 함께 또 문천상의 일부 저작은 단행본으로 간행되기도 하였다. 현재 보존되어 있는 가장 이른 단행본은 모두 明代에 간행한 것으로 청대에 간행된 단행본은 매우 적고 대부분이 총서나 전집으로 편입되었다. 문천상 저작의 단행본은 일본에서 간행된 몇 권이 보인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단행본은 별로 없는 편이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문천상 시집에 관한 단행본들도 많이 간행되었으며, 여러 총서에 많이 수록되어 있다.<sup>20)</sup>

#### 4) 現代 通行本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중 통행본으로는 아래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조사의 한계로 네 가지만 소개한다.

- (1) 上海商務印書館에서 『四部叢刊』(初編)의 수록한 문집으로서 烏程의 許氏가 소장한 明代의 刻本 『文山先生全集』(20권)(1936년).
- (2) 世界書局出版社에서 楊家駱이 편찬하고 劉雅農이 校勘한 『文文山全集』(상,하)(1979년).
- (3) 北京中國書店에서 출판한 활자본(鉛字本) 『文山先生全集』(1985년).
- (4) 江西人民出版社에서 熊飛 등이 校勘한 『文天祥全集』(1987년).

20) 黃源海, 「文天祥著作及其板本淺探」. 『贛圖通訊』, 1983, 04.

이 네 개 통행본은 모두 明代 嘉靖(1560)시기에 廬陵郡守 張元瑜가 刻本하고 羅洪先이 序를 쓴 『文山先生全集』을 影印한 것이다. 張元瑜 刻本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明代 嘉靖 31년(1552)에 언무경(鄢懋卿)과 영총(寧寵)이 각인한 『文山先生全集』 28권을 이은 것으로 비교적 완전한 판본이기에, 가장 많이 影印하고 있다. 굳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1936년 판본에서는 목차에 行狀이라고 한 부분이 다른 판본에서는 行實이라고 적혀있는데, 行狀이든 行實이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안에 실은 두 편의 문장을 살펴보니, 한편은 「先君子革齋先生事實」이고, 다른 한편은 「知潮州寺丞東巖先生洪公行狀」이다. 첫 편은 문천상이 돌아가신 아버지 文儀의 평생사적을 적은 글이었고, 두 번째는 進士인 洪天驥의 아들의 부탁으로 그의 아버지 저서 『東巖集』의 마지막에 序를 적어준 것이다.

현재 통행본에서 가장 잘 정리된 것은 1987년 江西人民出版社에서 熊飛 등이 校勘한 『文天祥文集』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출판설명」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21)</sup>

문천상의 저작이 당대와 후대에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 강서성도서관 판본목록학 전문가인 熊飛선생은 漆身起, 黃順强 등 동지들과 문천상의 저작에 대하여 일차로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진행하였다. 비교적 빠른 선본인 가정시기의 張元瑜가 판각한 『文山先生全集』에 근거로 하되, 명대의 경태 년간의 韓雍, 陳價 刻本부터 현대의 『四部叢刊』에 이르기까지 수십 여 종을 참고하여 교정하였으며, 그리고 또 方志와 別錄 등 수십 종을 참고하고, 흩어진 시와 문장 여러 편을 수집하여, 사실을 근거로 고치고 정리하여 20권으로 만들었다. 원문 17권, 보유(補遺) 1권, 부록으로 『年譜輯略』 등 몇 가지 전기자료 2권이다. 교정을 끝내고, 熊柏畦 선생님께서 청하여 한 차례 검열받았다.(爲了使文天祥的著作流傳於當代和後代, 江西省圖書館版本目錄學專家熊飛先生和漆身起, 黃順强等同志, 對文天祥著作進行了一次系統的整理, 根據較早的善本嘉靖張元瑜所刻『文山先生全集』, 參校以自明景泰韓雍, 陳價刻本至現代『四部叢刊』本等數十種, 又參考了方志, 別錄等十數種, 搜集了佚詩佚文多篇, 據實釐定爲二

21) 文天祥著, 熊飛校勘, 『文天祥文集』, 江西人民出版社, 1987, p.894

十卷：原文十七卷，補遺一卷，附錄『年譜輯略』等傳記資料多種爲二卷。  
校點脫稿後，並請熊柏畦老先生校閱一過)

위의 출판설명을 보면 1987년 江西人民出版社의 『文天祥文集』이 다른 통행본보다 더 잘 정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文天祥研究』의 저자 俞兆鵬과 俞暉는 ‘현재까지로는 문천상 문집 가운데 이것이 가장 최신판본의 문천상 시문전집이라 말할 수 있다.’고 평하였다.<sup>22)</sup>

역대로 출판된 문천상의 저작은 단행본이 10종, 전집이 16종, 총서본이 14종인데, 이것도 완전한 통계가 아니다. 문천상의 시사작품으로 다른 총집에 실린 것은 일일이 그 판본을 예거할 수도 없다.<sup>23)</sup>

### 3. 맺음말

문천상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의 강렬한 애국주의 정신을 표현한 詩文은 빠르게 유행하고 전파되었다. 문천상의 문집처럼 700년 동안 반복하여 수십 차례 각인하여 출판하는 현상은 극히 드물다.

후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문천상의 문집이나 단행본을 반복 영인한다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문천상이 원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끝까지 굴하지 않는 굳센 의지와 민족절개 그리고 나라와 인민에 대한 한결같은 충성심이 수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고 탄복하게 하여 대대로 찬송을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문천상의 작품은 확실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아주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대표작품 「正氣歌」는 한자 문화권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작품제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특히 『指南錄』과 『指

22) 俞兆鵬 俞暉, 『文天祥研究』, 人民出版社, 2008, p.329

23) 黃源海, 「文天祥著作及其版本淺探」. 『贛圖通訊』, 1983, 04.

南後錄』에 실린 작품들은 史詩로 불릴 정도로 그 가치가 뛰어나다.

문천상 문집의 최초의 모습은 원대에 문천상의 손자인 문부(文富)가 각관하였다는 50권 문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본이 적은 데다가 다른 책에 저록된 바도 없고, 원대에 이미 소실되어 후대 문천상 문집의 전승과는 인연이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현전하는 문천상 문집과 유관한 최초본의 판본은 『道體堂本』이라 할 수 있다. 문천상문집은 등벽청(鄧碧淸)이 “一個源頭 兩個系統”이라고 하였듯이, 『道體堂本』을 원류로 하여 경태본과 각각본의 두 계통으로 나누어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최초 판본은 원대에 이미 흩어져 현재는 원본의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이 최초 판본이 있으므로 인하여서 후에 더 좋은 판본들이 나올 수가 있었다. 도체당본은 明人 尹鳳岐의 『文山集』 17卷으로 재구성되었다가, 景泰 6년에 陳價의 손에서 『文山先生文集』으로 엮여지니, 이것이 바로 경태각본으로서의 최초의 문집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집은 嘉靖 39년에 張元瑜가 다시 더 교정하고 보충하여 비교적 완벽한 『文山先生全集』으로 만들었으니, 이후의 문천상전집은 대개 이를 저본으로 삼고 있다. 清代에 오면 문천상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집안에서 판각한 것이 많은데, 연대에 따른 편찬과 교정이 정밀하지가 않아서 현대에 와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는 편이다. 현재 통행본은 여러 판본이 있지만 모두 경태 39년본을 저본으로 삼고 있다. 경태 39년본을 저본으로 삼은 전집 가운데서도 1987년 江西人民出版社에서 출판한 『文天祥文集』이 지금까지는 가장 잘 정리한 문집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는 필자에게는 문천상 시작품의 판본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면서 동시에 향후 문천상의 시문학 연구에 하나의 바탕이 되리라 기대한다. 문천상 연구에 관심이 있는 이에게 이 연구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參考文獻

- 1) 四庫全書本『文山集』
- 2) 文天祥,『文天祥全集』,上海商務印書館,1936.
- 3) 文天祥,楊家駱編撰『文文山文集』,世界書局出版社,1979.
- 4) 文天祥,『文天祥全集』,北京市中國書店,1985.
- 5) 文天祥,熊飛校勘,『文天祥全集』,江西人民出版社,1987.
- 6) 江西省歷史學會,『浩然正氣-文天祥逝世七百週年紀念』,江西教育出版社,1986年.
- 7) 劉文源,『文天祥研究資料集』,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1,11.
- 8) 四川大學古籍研究所,『宋集珍本叢刊』第88冊,線裝書局,2004.
- 9) 『全宋文』卷八千二百六十『鄧光薦』,安徽教育出版社,2006.
- 10) 俞兆鵬·俞暉,『文天祥研究』,人民出版社,2008.
- 11) 何鬱,『文天祥傳』,長春出版社,2017.7.
- 12) 黃源海,「文天祥著作及其版本淺探」,『贛圖通訊』,1983,04.
- 13) 鄒宇波,「文天祥著述版本的一源三流辨」,山西大學報·社會科學版,2014.9.
- 14) [日]近藤一成撰,尤東進譯,「文天祥的“自述”與“他述”-以文天祥全集的編纂為中心」,暨南學報,2018.
- 15) 권호중·황영희,「文天祥 正氣歌의 人物典故 研究」,『韓中言語文化研究』55輯,2020.02.
- 16) 권호중·황영희,「文天祥 正氣歌에 보이는 歷史人物 考釋」,『인문사회과학연구』28권,2020.12.

## Abstract

### A study on the Editions of Wen Tianxiang(文天祥)'s Work Collection

Jin Hua · Kwon, Ho Jong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literary collection of Wen Tianxiang(文天祥) in Southern Song dynasty of China. The first appearance of Wen Tianxiang's collection of works can be said to be a 50-volume anthology engraved by Mun Bu(文富), the grandson of Wen Tianxiang in the Yuan Dynasty. However, this had only a few copies, and was not been recorded in any other books. Furthe more it had been already lost in Yuan(元) Dynasty. It has no connection with the later collections of Wen Tianxiang's work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irst edition related to Wen Tianxiang's collections of works is 『DaoTitag Edition(道體堂本)』. Just as 『Deng Biqing(鄧碧清)』 mentions “One source and two lines(一個源頭 兩個系統),” Wen Tianxiang's work collections can be said to have been divided into two lines, the Jingtai line(景泰係) version and the descendant engraved version(家刻係本) from 『DaoTitag Edition(道體堂本)』 as its source. Although this first edition had been already scattered in Yuan Dynasty and no trace of the original can be found today, the existence of this first edition has made it possible for the better editions to come out later.

The 『DaoTitag Edition(道體堂本)』 was reorganized into the seventeen volumes of 『文山集』 by Yin Fengqi(尹鳳岐) of Ming Dynasty, and thereafter was compiled into 『文山先先文集』 in the 6th year of Jingtai(景泰) by the hand of Chen Jia(陳價). This is the first literary collection as Jingtai line version(景泰係本). This collection of works was further revised and supplemented by Zhang Yuanyu(張元諭) in the 39th year of Jingtai(景泰) to create the relatively complete 『文山先先全集』. So most of the subsequent collections hasy used this version as their source material. By the time of Qing Dynasty, many engravings(家刻本) were made in the family, mainly by Wen Tianxiang's descendants, but because the compilation and proofreading were not precise, they are not used much in modern

times.

There are currently several versions, but all of them are based on the 39th year' version of Jingtai. Among the collections based on the 39th year's version, 『文天祥文集』, published by Jiangxi People's Publishing Company in 1987,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organized collection of works so far.

**Key words** : Wen Tianxiang(文天祥), DaoTitag Edition(道體堂本), Jingtai line version(景泰係本), descendant engraved version(家刻係本), Zhang Yuanyu(張元諡)

투 고 일 : 2023. 10. 10. / 심 사 일 : 2023. 10. 15. ~ 2023. 11. 15. / 게재확정일 : 2023. 11. 20.

